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국경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나는 나를 모른다

신윤식

나는 나를 모른다.
늘 허황된 꿈을 꾸면서
헛된 욕망을 빈 바구니에 담아 놓고
채워지지 않아 얼굴 찡그리는 나를
나는 모른다.

나는 나를 모른다.
눈 속에 들어와 박힌 채
떠나지 않는 것들로 어지럽고
온갖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나는 나를 모른다.
남의 떡 크게 보여
시샘하는 눈길로 바라보고
손에 쥔 것조차
스멀스멀 빠져 나가는 느낌도 모른 채
움켜쥔 것 사라질까 노심초사하는 나를
나는 모른다 한다.

혼자 뇌까려 본다.
나는 나를 모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7.28

발행호수 제21권 30호

선 악과를 먹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순수함은 이미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인간관계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한 몸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존재로 오

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인간관계는 신뢰보다는 서로에 대한 불신만 높아졌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추구하는 일 또한 이미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삶은 편해졌다 할지라도 피조물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불가능해진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신자 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현실에 순응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는 삶만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과연 어떤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지 나의 구원을 위한 분으로서만 여긴다면 삶과는 단절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의 삶이 기독교적인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현실에 순응하고 굴복하고 끌려가는 삶이라고 해도 기독교적인 생활이란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며 복음을 대합니까? 이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오염되고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잃어버린 채 왜곡된 삶의 길로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본래의 자리로 찾아가기 위한 중요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열여덟 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꼬부라졌다

주일오전설교
눅 13:10-17

사탄에게
매인 자

는 것은 허리가 굽은 것을 말합니다. 허리가 굽은 것을 귀신 들려 앓은 것으로 말한 것을 보면 나이가 들어 자연적으로 허리가 굽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자면 귀신, 즉 악한 영에 억압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허리가 굽은 것을 모두 귀신에게 억압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허리가 굽은 여인을 내세워 귀신에게 억압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지를 말씀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시고 안수하시자 여인이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일은 귀신에게 18년 동안 억압되어 있던 한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은혜의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회당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18년 동안 귀신에 의해 허리가 굽어 고생한 여인을 위로하고 허리가 펴진 것을 축하하며 여인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분을 내며 반대하고 무리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은 무리들에게 “일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 이니라” 고 말합니다. 안식일만 지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옛새라는 기간이 있으니 그때 여인을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회당장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회당장은 여인의 병을 고쳐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상태였다면 하루 뒤에 고침을 받는다고 해도 여인에게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병이 치료되는데 하루를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겨가며 여인을 고쳐주는 것보다 안식일이 지나서 고쳐주면 안식일도 지키고 여인의 병도 고쳐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회당장의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아마 회당의 무리들도 회당장의 말에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 라고 말씀하심으로 회당장을 외식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라고 하신 것은 회당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회당장의 말에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위선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회당장과 그의 말에 동조하는 무리들을 외식하는 자로 규정하실까요?

예수님은 15,16절에서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질병을 고쳐준 것을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여기며 분을 낸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였음을 지적합니다. 즉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례를 그들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나름대로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한 거리 안에서 끌고 가 물을 먹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닌 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정한 규례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외식하는 것으로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마 23:24절의 말씀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이라고 해도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을 허용한 것은 자기 소유인 소나 나귀가 물을 먹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기 소유인 소나 나귀를 아끼기 때문에 허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소나 나귀의 고통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안식일에도 외양간에 매인 줄을 풀어 주는 것을 허용했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여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합니다. 회당장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나 나귀의 고통은 생각할 줄 알면서 정작 아브라함의 딸의 고통은 외면하고 예수님께 분을 내는 것을 외식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말에 따라 예수님의 일을 반대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아마 자신들의 위선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안식일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여인을 고치시는 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려 앓음으로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것을 사탄에게 매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사탄의 매

임에서 풀어주심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18년간 사탄에게 매인 여인을 예수님이 풀어 주었다는 것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여인을 사탄에게서 풀어 줄 수 없었음을 뜻합니다. 즉 사탄에게 매인 여인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처럼 사탄에게 매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분명 예수님만이 나를 사탄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도 자신을 여인과 동일하게 사탄에게 매인 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허리가 꼬부라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가 바로 회당장이고, 회당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며 오늘 우리 자신들이기도 합니다.

회당장은 자신이 여인과 동일하게 사탄에게 매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회당장은 외식하는 자였고 그것이 곧 사탄에게 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인이 사탄에게 매어 있는 상태는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회당장의 매임은 마음이 꼬부라진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꼬부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에서 자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은 여인과 달리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생각하면서 규례를 따지고 규례를 내세워 분을 내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만나를 먹게 하시면서 육일 동안은 거두되 칠일 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육일 쉼은 이틀의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즉 만나는 단지 육신을 배부르게 할 먹을 것이 아니라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기뻐하고 영광 돌릴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뻐하시며 칠일 쉼 안식하신 그 안식에 참여할 존재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 몸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매인 인간의 상태입니다. 즉 마음이 굵어진 것입니다. 이

처럼 사탄에게 매인 인간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을 해방시키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따라서 여인을 풀어주신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신 생명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늘 자기 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인간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주신 취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사탄에게 매인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안식일의 정신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게 분을 내는 것이야말로 외식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매임으로 마음이 굽어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자신을 살리는 양식은 예수님에게서 배풀어지는 자비입니다. 사탄에게 매인 자신을 풀어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자신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없는 인간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없는 인간,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사탄에게 매인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자비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여인을 사탄에게서 해방시켰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굽은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어 허리가 굽은 상태로 고통의 세월을 지냈던 여인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인은 사탄에 의해서 허리가 꺾꽂힌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에게 예수님과 만남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럼 사탄에게 매임으로 마음이 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남

으로 그 자비하심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사탄에게 매인 마음이 굽은 자임을 알지 못한다면, 즉 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소경된 상태에 있다면 그런 나에게서 나올 것은 비판뿐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것이고 종교인의 모습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탄에게 매인 비참한 처지만 보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상대방의 죄를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탄에게 매인 자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엔 무엇을 내세우며 살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를 안다는 그것조차도 의의 도구로 삼고,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사탄에게 매인 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에 눈을 뜨게 되며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길로 인도 받을 것입니다.

.....

신 자인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고 매일의 삶에서 은혜를 실감하고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오히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적다는 이유로 불만만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은혜에서 단절되었을 때의 결과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저자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주'로

주일오후설교

시 123:1-4

열시와 은혜

(127강 6.30일 설교)

일컬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현대인의 사고와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인들도 하나님을 하늘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의미를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공간, 즉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자는 하늘을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주로 일컬으면서 눈을 들어 주께 향하고 주로부터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저자가 말하는 은혜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자기 몸을 기증하여 생각합니다. 몸이 잘되는 것을 은혜로 이해하고 그 은혜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기도를 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것도 실상은 '주여 내 몸이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4절에서도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저자는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는 처지에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말은 멸시에서 건져 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겪고 있는 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생각하면 돈이 없고 힘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멸시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시에서 건짐 받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가 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러한 의미의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어떤 의미에서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123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점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즉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건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면 은혜는 성전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좋은 것을 끌어 다가 은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은혜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 말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은혜임을 성전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주로 일컫는 것도 은혜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분명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참된 은혜이며 시편 저자는 바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저자의 마음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2절)는 고백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은혜를 기다리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과 상전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 같다는 것은 상전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종의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의 운명은 상전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전의 결정이 곧 종에게는 평생의 운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상전의 지시와 결정에 민감한 관심을 보이는 종의 눈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저자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운명, 즉 자신의 전부로 여긴다면 은혜에 대해 참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그러한 심정인지가 문제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없어도 산다' 는 애굽적 사고방식으로 대한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구하는 은혜는 멸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저자가 겪는 심한 멸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한 멸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볼 문제는 123편의 내용을 보면 저자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알 수 있는데 왜 심판 멸시를 당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늘 부딪히고 우리를 흔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대개 생각하는 은혜는 신자로 하여금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상황은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저자를 멸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멸시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는 멸시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멸시 받는 자리에서 멸시 받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된 신자가 구하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2절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인 개역한글판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역시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은혜나 긍휼이나 같은 의미의 말이지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은혜보다는 긍휼이라는 말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멸시의 자리에서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좋은 멸시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좋은 자신의 종의 신분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구하는 것은 다만 자신을 불쌍히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신자입니다.

멸시 받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을 이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은혜 만능주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신자는 어떤 형편에서든 좋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짐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곧 생명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형편에 처해진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베푸신 일로 바라보면서 더 좋은 형편으로 나아기를 원하기보다는 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영혼이 건짐 받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형편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자일뿐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 두기보다는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에 머물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건질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5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처음 나타난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이어져 내려온 언약입니다. 물론 그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로 인한 멸망이 없을 것을 무지개를 증표 삼아 언약을 하신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래 존재하는 이스라엘은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이고, 원한 대로 되어 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룰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토대를 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는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우리가 믿고 신앙의 토대로 삼아야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언약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언약이 끝났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언약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언약의 정신이 내용으로 담겨 있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알지 못하고 무시할 때 인간에게서 나타나

수요일설교

렘 33:19-26

파할 수 없는 언약

(84장 6.12일 설교)

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식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 낸 구원 방식을 채택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 낸 구원 방식이란 구원의 근거를 인간에게 두는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자기 행함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간의 행함을 부인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여부를 자기 행함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개입된 것은 구원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고,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신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인한 감사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다움입니다.

21절을 보면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해와 달이 움직이고 그로 인해 낮과 밤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과학의 눈으로만 보면서 자연 법칙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바꿀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도 깨뜨려 다윗 자리에 앉아 아들도 없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세상에 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20,2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절대로 깨뜨려지지도 않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의 형편에 빗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은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영망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고 상기하게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비록 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있고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영망이지만 나의 언약은 여전히 너희들 속에 살아있다 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다 백성은 구원 받을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로만 따진다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어울릴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심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고쳐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열심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길로 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선포되는 언약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이 세워져 있고 누구도 언약을 깨뜨릴 수 없는 한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아니었다면 유다는 일찌감치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25,26절의 말씀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해와 달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아래 전혀 변화 없이 낮과 밤을 주관하고 있음을 보면서 언약 또한 깨뜨려지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붙들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아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처지만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언약을 바라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두 가계를 버렸다고 이방인이 조롱하며 나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멸시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 있고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역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뜨려지지 않는 언약에 의해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약에 의해 생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야 합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2장

교 독 : 37(시91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415장

성 경 : 눅 13:10-17

말 씀 : 사탄에게 매인 자(69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48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6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50장

기 도 : 송수경 집사

찬 송 : 519장

성 경 : 시 127:1-5

말 씀 : 헛된 수고(13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83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89강)

■ 교회소식 ■

1. 은석교회 유년부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삼천포 동산교회당에서 열리는 캠프에 참가합니다.
2. 5일부터 8일까지 문경선유동유스파크에서 총회청년수련회가 열립니다.
3. 8일 오전 11:30분에 총회신학원 본당기공예배가 천안캠퍼스에서 있습니다.
4. 8월11일 주일에 재건교단 은퇴목회자의 노후를 돕기 위한 은급현금을 합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장동현 집사

이단 ④

이들은 또한 사 59:13,14절을 따라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가르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식교의 홈페이지에서 소개되어 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폐지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성일, 종교적 절기들, 그리고 연례적인 안식일이라고 한다.

골 2:16,17절의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는 구절을 근거 삼아 구약의 모세 율법은 유대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사건을 가르쳐 주는 모형과 그림자들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형은 원형을 만났으며 그런 이유로 자신들은 연례적인 유월절, 의식적인 안식일, 기타 다른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내용만 보면 이들이야말로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맥추절, 추수절,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강조하며 헌금을 강조하는 현대 교회보다 더 성경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안식일은 율법이며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모형이라고 하면서 왜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고 구원의 표로 내세우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안식일도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모형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도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거룩한 안식일이 폐기되었다는 주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앞뒤가 다른 모순적인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들이 구약의 안식일과 자신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의식적 안식일이라고 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식적 안식일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복하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선을 행하고, 환자를 고치고, 자비를 베푸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안식교는 구약의 의식적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복하신 진정한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하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표징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자신들의 안식일이 구약의 의식적 안식일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안식일 지키는 규례가 구약의 규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구원론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딤후 2:11절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라는 구절을 근거하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구약의 백성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롬 4:1-5절을 근거로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갈 2:16절을 근거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롬 3:24절 말씀을 인용하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고 한다. 의롭다 여김 받는 칭의 또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말한다. 이것만 보면 분명 성경에 입각한 구원론을 갖고 있는 건전한 교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왜 안식일 준수를 주장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들의 결론에서 알 수 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염려하는 것은 소위 방종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살아도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 빠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